

##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한 상 철<sup>†</sup>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의 다양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있다. 청소년은 발달적 특성상 위험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이 이들에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미 문제행동 비행에 개입한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 216명과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은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1,02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특정 위험행동(가출, 흡연 등)에 대해 보호요인이 작용할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행동의 확률은 의미있게 높을 것이다. 측정도구는 위험행동(가출, 흡연, 성관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개의 선다형 문항과 위험행동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위험행동 지각척도(2개 문항의 점 평정척도), 그리고 5개 변인의 보호요인(긍정적 가족기능, 부모 모 각각에 대한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척도이다. 연구의 결과 특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가출과 흡연, 성관계 각각에 대한 경험이 의미있게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이 이들 각 위험행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 집단에는 보호요인이 가출과 비가출, 흡연과 비흡연, 성관계 유무를 각각 의미있게 판별해 주었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들의 위험행동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차단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요인이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향상시킴으로서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문제행동, 위험행동,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

<sup>†</sup> 교신저자 : 한상철,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  
E-mail : hshc@dhu.ac.kr

## 문제제기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다른 어떤 발달 단계의 개체보다 스릴과 모험을 더 많이 추구하고, 억제나 규제를 더 싫어하고, 지루함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으며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신체적·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하고 신기하며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이와 같은 특성을 Arnett(1996)와 Zuckerman(1979)들은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라고 하고, 신기성과 모험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성향이 청소년 위험행동(risk behavior)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험행동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적 산물이지만(Irwin, 1993), 해체가정이나 중도탈락과 같이 열악한 환경조건에 처한 청소년들과 같이 그들의 생태학적 환경이 그들에게 스트레스와 권태로움을 가중시킬 때 위험행동은 그것의 부정적인 기능 즉, 병적인 문제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Arnett, 1998; McWhirter, McWhirter, & McWhirter, 2004). 위험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이며(Arnett, 1998), 손실의 가능성(chance of loss)을 지니고 있는 행동(Irwin, 1993)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난폭운전, 싸움, 흡연, 약물남용, 성행동 등)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가출, 무단결석, 부정행위, 학교중퇴)으로 크게 양분되며(Levitt & Selman, 1996), 이것의 부정적인 결과는 심각한 상처나 죽음, 법적 구속, 원하지 않는 임신, 소외감, 우울증 및 정신장애 등

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위험요인(risk factors)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음으로써 주변의 열악한 환경 및 조건들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teinhausen et al.,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예를 들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고위험군에 대해 위험요인은 20-49%만을 설명해주는 반면, 보호요인은 50-80%를 설명해 준다(Davey, Eaker, & Walters, 2003). 보호요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특정 위험요인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위험요인(학대, 방임, 지속적인 폭력 등)은 그것이 곧바로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생활사건 스트레스나 일상적인 짜증(hassle) 등의 위험요인은 개인의 지각 및 신념에 의해 중재되어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때 개인의 신념에 작용하여 위험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 또는 차단시켜 주는 요인이 곧 보호요인이다(Selman & Levitt, 1996). 예컨대, 보호요인으로 적극적 대처능력(positive coping strategy)을 활용하거나 부모의 감시 및 통제가 높게 작용하는 청소년들은 위험요인으로 일상적인 분쟁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비율이 의미 있게 낮으며, 사회 적응력과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이와 같이 높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개인들이 심리적 장애나 사회적 문제행동을 나타내 보이기보다 보호요인의 작용으로 그 상황

에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현상을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고 한다(Dumont & Provost, 1999; Masten, 2001; Steinhausen et al.,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Whitaker & Miller, 2000; 신현숙, 2004; 유성경·심혜원, 2002).

최근 위험행동에 대한 일부 연구자들은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가치감과 자아강도, 대처전략,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 등의 보호요인을 더 많이 지니고 있으며(Dumont & Provost, 1999; Steinhausen et al., 2001; 신현숙, 2004), 성격 프로파일에서 외향성과 유쾌함, 새로운 경험에의 개방성(Davey, Eaker, & Walters, 2003) 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들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은 그 자체가 모두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적응유연성이 낮을 때 문제행동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호요인의 부재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위험행동 즉, 문제행동 가능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행동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은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Luthar, Cicchetti 및 Becker(2000)와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이를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족관련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적극적 대처전략,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감 등이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가족의 긍정적 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Dumont & Provost, 1999; Steinhausen et al., 2001). 한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변인과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학교 분위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avey et al., 2003). 예컨대, 부모와의 대화가 풍부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성 위험상황에서도 성 관련 문제행동에 개입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예, Steinhausen et al., 2001)가 있으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동일한 위험요인 상태에서 흡연이나 알코올 등의 위험행동 개입이 현저하게 낮다(예, Masten & Coatsworth, 1998). 보호요인의 강력한 중재효과가 확인될 경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이를 처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떤 시대와 환경에서도 그들의 발달적 특성상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작용하는 모든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기보다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처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지금까지 위험행동 연구에서 확인된 보호요인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정의 긍정적 가족 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선정하여 이들 보호요인들이 가출이나 흡연, 성관계 등의 위험행동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과 비행경험이 없는 일반집단 청소년(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이 실제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방법

## 대상 및 연구절차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을 전제로 작용하는 변인이다. 따라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이미 문제행동에 개입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수용 중인 청소년(특수집단) 216명과 위험요인 노출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일반집단) 1,020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은 소년원 150명과 보호관찰소 66명이며, 설문조사 승인신청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각 시설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대구지역 5개의 구에서 1개 교씩 전체 5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5개 학급씩 선정된 학생들이며, 학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자료처리 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이나 전체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많은 수의 피험자들이 제외되었다. 설문대상이 특수집단일 뿐

만 아니라 설문 문항이 많음으로서 불성실한 응답을 양산했다고 판단된다. 설문지 클리닝 작업을 통해 최종 자료처리 된 대상은 실업계 고등학생 950명과 특수집단 179명(소년원 130명, 보호관찰소 49명)이며, 이들의 각 집단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크게 3가지 측정영역의 7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3가지 측정영역은 피험자들의 위험행동 개입여부와 위험행동 지각 정도, 보호요인에 대한 것이다.

## 위험행동 개입여부 확인

피험자의 위험행동(가출, 흡연, 성관계 등) 개입여부를 묻는 문항(3개)으로써,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이종원 등(2001)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 위험행동 지각 척도

위험행동지각척도는 Arnett(1998), Gullone et al., (2000)에 기초하여 한상철(2003)이 신뢰도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전체 21개 문

표 1. 연구대상 집단의 분포

		표본 집단		자료처리 대상		평균연령
특수집단	소년원	150명	216명	130명	179명	만 18.2세
	보호관찰소	66명	(17.47)	49명	(15.85)	만 17.1세
일반집단 (실업고)	1학년	196명	1,020명 (82.52)	174명	950명 (84.14)	만 16.7세
	2학년	295명		275명		만 17.2세
	3학년	529명		501명		만 18.3세
전체		1,236명(100.0)		1,129명(100.0)		

항의 5점 평정척으로 되어 있으며,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 지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3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분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 보호요인 척도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해 줄 것으로 가정된 보호요인 5가지는 긍정적인 가족기능, 부와 모 각각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다. 이들 변인의 측정도구는 많은 선행연구에 터하여 선정되었다.

가족기능 척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정유미, 김득성(1998)이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족기능척도는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된 5점 평정척도이며(Cronbach's alpha = .73), 부와 모 각각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된 5점 평정척도(Cronbach's alpha = .81, .87)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는 한미현(1996)이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검증절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24개 문항)와 이 척도를 기초로 양돈규(1997)가 재구성한 42개 문항의 '사회적 지지 척도' 등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척도는 5점 평정척도(1점-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님과 가족, 교사, 또래, 이웃이나 사회적 지원체계 등이 피험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피험자의 지각에 기초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9이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 척도는 Bandura(1997)의 "자기 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한 것으로, 3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Cronbach's alpha = .68)이다.

####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소집된 자료를 각 집단별로 분류하고,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코딩과정에서 응답이 불충실하거나 주어진 전체 척도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켰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된 자료처리 방법은 Chisquare Analysis, two-way ANOVA, 그리고 Discrimination Analysis이다. 예컨대, 특수·일반 집단간 위험행동(가출, 흡연, 성관계) 개입 여부를 비교하기 위하여 Chisquare Analysis를 적용하였고, 집단과 위험행동 개입여부에 따라 위험행동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리고 특수집단(비행경험)과 일반집단(비행무경험) 각각에 따라 보호요인이 위험행동 경험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준판별분석을 적용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개입비율을 빈도분석을 적용하여 확인해 보았다(표 2~ 표 4).

먼저, 가출경험은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8.8%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수용된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비행 개입의 주요 경로가 가출이라는 사실을

표 2. 가출경험

( ) %

	있다	없다	전체	$\chi^2$
특수	141(78.8)	38(21.2)	179(100.0)	$\chi^2=266.345^{***}$ df= 1
일반	179(18.8)	771(81.2)	950(100.0)	
전체	320(28.3)	809(71.7)	1129(100.0)	

\*\*\*p<.001

표 3. 흡연 여부

( )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chi^2$
특수	94(52.5)	30(16.8)	55(30.7)	179(100.0)	$\chi^2=241.747^{***}$ df=2
일반	131(13.8)	724(76.2)	95(10.0)	950(100.0)	
전체	225(19.9)	754(66.8)	150(13.3)	1129(100.0)	

\*\*\*p<.001

집작할 수 있다.

그리고 흡연여부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52.5%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3.8%로 나타났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출과 더불어 흡연 역시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성관계 유무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73.7%, 일반집단은 32.0%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성친구와의 키스나 포옹 등의 성관계

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행동에 속하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개입 여부가 그들의 위험행동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5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각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집단간 그리고 가출경험 유

표 4. 성관계 유무

( )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chi^2$
특수	132(73.7)	42(23.5)	5(2.8)	179(100.0)	$\chi^2=110.722^{***}$ df= 2
일반	304(32.0)	580(61.1)	66(6.9)	950(100.0)	
전체	436(38.6)	622(55.1)	71(6.3)	1129(100.0)	

\*\*\*p<.001

표 5. 가출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지각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수(N=179)		일반(N=950)		전체(N=1129)	
	M	SD	M	SD	M	SD
있다	57.04	11.99	47.25	14.75	51.56	14.43
없다	50.92	13.50	40.55	16.38	41.04	16.40
전체	55.74	12.54	41.81	16.29	44.02	16.55

표 6. 집단별 가출경험 여부와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951134.78	1	951134.78	3930.59	.000
집단	10092.38	1	10092.38	41.71	.000
가출	4075.75	1	4075.75	16.84	.000
집단 * 가출	8.11	1	8.11	.03	.855
Error	272230.32	1125	241.98		

무간의 주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피험자 집단유형과 가출경험 유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위험행동 특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의 특수집단 청소년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의미있게 더 높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7과 표 8에 따르면, 집단간 그리고 흡연경험 유무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고,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이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위험행동 특점이 더 높다.

한편,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값에 근거하여 집단과 흡연 유무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

표 7.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수		일반		전체	
	M	SD	M	SD	M	SD
있다	56.47	9.74	51.27	14.49	53.44	12.96
없다	48.07	16.19	39.69	16.25	40.03	16.32
잘 모르겠다	58.69	13.10	44.94	13.76	49.98	15.03
전체	55.74	12.54	41.81	16.29	44.02	16.55

표 8. 집단별 흡연경험 여부와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1095278.92	1	1095278.92	4700.88	.000
집단	9137.61	1	9137.61	39.22	.000
흡연	7726.68	2	3863.34	16.58	.000
집단 * 흡연	1560.44	2	780.22	3.35	.035
Error	261653.06	1123	232.99		

면, 특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위험행동 지각 특점이 더 높지만,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차보다 흡연경험이 없거나 흡연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의 집단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흡연경험 유무보다 비행 성향(특수 대 일반)이 위험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9와 표 10에 따르면, 집단간 그리고 성관계 경험 유무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다. 즉,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위험행동 특점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 따라서 성관계 경험은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5가지 요인(가족기능,

표 9. 성관계 여부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수		일반		전체	
	M	SD	M	SD	M	SD
있다	58.78	9.76	48.65	14.94	51.72	14.35
없다	45.98	15.18	38.31	16.14	38.83	16.18
전체	55.69	12.53	41.87	16.48	44.14	16.70

표 10. 집단별 성관계 경험 유무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1009806.83	1	1009806.83	4426.79	.000
집단	8699.61	1	8699.62	38.14	.000
성관계	14717.34	1	14717.34	64.52	.000
집단 * 성관계	166.68	1	166.68	.73	.393
Error	240430.78	1054	228.11		



표 11. 특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2$	df	p
.024	100.0	100.0	.154	.976	4.213	5	.519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수집단(소년원, 보호관찰소)과 일반집단(실업계 고등학교)별로 보호요인 전체가 가출, 흡연, 이성친구,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먼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별로 가출여부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수용된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므로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은 그들의 위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12에 따르면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은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관련정도인 정준상관계수는  $r=.148$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가출여부를 판

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가출 여부가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완충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에게 보호요인이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비행에 개입하였으며, 따라서 가출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완충해 주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집단 청소년들은 보호요인의 작용이 가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가출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차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따르면,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모 의사소통(-.878), 가족기능(-.320), 자기효능감(-.185), 부의사소통(-.169), 사회적 지지(-.155)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행동을 중재하고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보호요인으로는 모의 의사소통, 가족의 긍정적 기능, 자기 효능감, 부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표 12.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2$	df	p
.022	100.0	100.0	.148	.978	20.964	5	.001

표 13.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Variable	function
가족기능	-.320
부의사소통	-.169
모의사소통	-.878
사회적지지	-.155
자기효능감	-.185

지지의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준판별함수는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의 65.9%와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의 52.1%를 각각 정확히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판별적중률은 54.7%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류 정확성은 54.4%로 나타났다(표 14).

두 번째, 특수집단과 일반집단별로 흡연 유무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따르면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수용된 특수집단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은 그들의 흡연 위험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6에 따르면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관련정도인 정준상관계수는  $r=.159$ 로 나타났다.

표 14.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Group		N	Predicted group membership	
			가출행동 유	가출행동 무
원래 값(a)	가출행동 유	179	118(65.9%)	61(34.1%)
	가출행동 무	771	369(47.9%)	402(52.1%)
교차 유효 값(b)	가출행동 유	179	117(65.4%)	62(34.6%)
	가출행동 무	771	371(48.1%)	400(51.9%)

Percent if "grouped" correctly classified: 54.7%(a), 54.4%(b)

표 15. 특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2$	df	p
.005	100.0	100.0	.070	.995	.580	5	.989

표 16.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2$	df	p
.026	100.0	100.0	.159	.975	21.894	5	.001

표 17.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Variable	function
가족기능	-.319
부의사소통	-.503
모의사소통	-.629
사회적지지	-.076
자기효능감	-.303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흡연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비행)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의미있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흡연 여부를 의미있게 판별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들이 그들의 흡연행동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지 못하는데 반해,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보호요인들이 흡연행동의 감소와 더불어 흡연 위험행동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완충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 따르면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모 의사소통(-.629), 부 의사소통(-.503), 가족기능(-.319), 자기 효능감(-.303), 사회적지지(-.076)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에 의하면,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의 66.4%와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의 53.2%를 각각 정확히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판별적중률은 55.2%이고, 교차 분류 정확성은 54.9%이다.

세 번째, 특수집단과 일반집단별로 성관계 경험 유무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 따르면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

표 18.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Group	N	Predicted group membership	
		흡연경험 유	흡연경험 무
원래값(a)	흡연경험 유	179	87(66.4)
	흡연경험 무	771	339(46.8)
교차 유효값(b)	흡연경험 유	179	86(65.6)
	흡연경험 무	771	341(47.1)

Percent if "grouped" correctly classified: 55.2%(a), 54.9%(b)

표 19. 특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2$	df	p
.052	100.0	100.0	.222	.951	8.541	5	.129

표 20.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2$	df	p
.015	100.0	100.0	.122	.985	13.275	5	.021

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수용된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은 그들의 성관계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20에 따르면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관련정도인 정준상관계수는  $r=.122$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성관계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성관계 여부를 판별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이 성관계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성관계가 그들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차단해

표 21.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Variable	function
가족기능	-.736
부의사소통	-.448
모의사소통	-.172
사회적지지	-.346
자기효능감	-.160

주지도 못한다. 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 보호요인들은 청소년들의 성관계 감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관계가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차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 따르면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가족기능(-.736), 부의사소통(-.448), 사회적 지지(-.346), 모 의사소통(-.172), 자기 효능감(-.160) 순으로 설명력이

표 22.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Group	N	Predicted group membership	
			성관계 유	성관계 무
원래 값(a)	성관계 유	179	165(54.3)	139(45.7)
	성관계 무	771	245(42.2)	335(57.8)
교차 유효 값(b)	성관계 유	179	162(53.3)	142(46.7)
	성관계 무	771	250(43.1)	330(56.9)

Percent if "grouped" correctly classified: 56.6%(a), 55.7%(b)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에 의하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의 54.3%와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의 57.8%를 각각 정확히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판별적중률은 56.6%이고, 교차분류 정확성은 55.7%이다.

## 논의 및 결론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위험행동에 개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보호요인의 중재 작용에 의해 위험행동이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비행에 개입한 특수집단(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는 보호요인이 거의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위험행동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보호요인이 작용함으로써 그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고 있지만,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의도되었다.

이를 위해 비행 경험이 있는 216명의 특수집단(소년원 150명, 보호관찰소 66명)과 1,020명의 일반집단(실업계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위험행동(가출, 흡연, 성관계) 개입여부를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5개의 보호요인(긍정적 가족기능,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이 이들 각 집단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예컨대, 특수집단은 위험행동 개입비율이 높지만, 보호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함으로써 가출이나 흡연, 성관계 등의 위험행동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가정을 지지해주었다. 먼저, 특수집단 청소년들은 일반집단보다 위험행동 개입 정도가 의미있게 더 높으며, 보호요인이 그들의 가출과 비가출, 흡연과 비흡연, 성관계 경험과 무경험을 의미있게 판별해 주지 못하였다. 이는 곧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호요인은 그들의 위험행동을 완충시켜 주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문제행동에 개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집단의 청소년들은 특수집단보다 위험행동 개입 비율이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이 가출과 비가출, 흡연과 비흡연, 성관계 경험과 무경험을 의미있게 판별해 주었다. 일반 청소년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보호요인은 가출과 비가출을 의미있게 판별해 주며, 결국 보호요인이 가출을 예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출이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 개입을 차단해 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일반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은 가출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가정의 긍정적 기능, 자기 효능감 등이고, 흡연에는 모와 부의 의사소통 정도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성관계에는 가족기능과 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의 순임이 확인되었다.

Hernandez(1993)에 따르면, 보호요인이 작용하는 과정은 첫째, 위협에 작용하여 스트레스나 위협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둘째, 위협으로부터 야기된 부정적인 반응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며 셋째,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개인관계를 활용하거나 또는 과업성취나 성공을 통해 자존감과 자기 유능감을 증진시키며 넷째, 긍정적인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보호요인은 위험행동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 적응적인 행동 즉,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한상철, 2004).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요인의 이와 같은 작용을 검증한 것이며, 이는 곧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작용을 한 보호요인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흡연과 가출, 성관계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위험행동 개입을 감소시켜 주거나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친밀한 관계 형성은 청소년 자녀의 성적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며(안권순, 한건환, 2001; 한인영 등, 2001),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Funk, 1999). 이성식과 전신현(2001), 유성경·심혜원(2002)의 연구에서도 가정 내 불화와 역기능적 환경,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재 등이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과 성적 일탈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또한 비행 개입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청소년 대부분이 여자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자들의 주장과 같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 흡연, 성관계 등 위험행동을 감소시켜 주며, 또한 비행 개입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 자기 효능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별한 과제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상황적이고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97). 자기 효능감은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의 유혹을 극복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며(Bandura et al., 2003), 성비행이나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Ludwig & Pittman, 1999). 본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일반 청소년의 가출과 흡연 등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위험행동의 감소와 더불어 이들의 비행 개입 경로를 차단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역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Bowen & Chapman, 1996; Marshal & Chassin, 2000). 즉 개인이 주변 환경 안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정용력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정서적·외현적 일탈행동에 취약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보호요인 전체에 작용하여 일반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개입을 감소시키고 비행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적인 영향력 면에서 다른 보호요인들보다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돈규(1997)의 연구에서 비행친구가 없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친구가 있는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일반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들 주변에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개입한 친구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혹시 일탈성향이 있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작용하여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주고 있다. 보호요인의 영향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출과 흡연, 성관계 등의 위험행동 개입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위험행동이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중재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에게는 보호요인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데 반해 일반 집단의 경우에는 그것이 위험행동 개입 여부를 판단해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변수인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확인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처치해 주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현숙 (2004). 가정환경 역경에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5, 1, 141-161. 한국상담학회.
- 안권순, 한건환(2001).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변인과의 관계. *상담과 지도*, 36, 한국 카운슬러협회.
- 양돈규 (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유성경, 심혜원 (2002).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성식, 전신현 (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 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이종원 등. (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유미, 김득성 (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상철 (2003). 감각추구성향과 대처전략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 4, 5-24. 한국교육심리학회.
- 한상철 (2004). 중소도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측요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18, 3, 193-210.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 (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 138-148.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301-320.
- Arnett, J. (1996). Sensation-seeking, aggressiveness,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693-702.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 Company, 174-177.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Gerbi-no, M., & Pastorelli, C. (2003). Role of affective self-regulatory efficacy in diverse sphere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4, 769-782.
- Bowen, G. L. & Chapman, M. V. (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641-667.
- Funk, S. (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1), 44-68.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31-250.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Ludwig, K. B. & Pittman, J. F. (1999). Adolescent prosocial values and self-efficacy in relation to delinquency, risky sexual behavior, and drug use. *Youth & Society*, 30, 461-482.
- Marshall, M. P. & Chassin, L. (200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80-89.
- Davey, M., Eaker, D. G., & Walters, L. H. (2003). Resilience process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profiles, self-worth,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4, 347-362.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 343-363.
- Irwin, C. E., Jr. (1993). Adolescent and risk taking: How are they related? In N. J. Bell & R. W. Bell (Eds.), *Adolescent risk taking*, Sage, Newbury Park, CA.
- Levitt, M. Z., & Selman, R. L. (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3, 543-5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 & Cole.
- Selman, R. L., & Levitt, M. Z. (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Steinhausen, Hans-Christoph, & Metzke, C.W.



-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3, 259-280.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 3, 328-349.
- Whitaker, D. J. & Miller, K. S. (2000). Parent-adolescent discussions about sex and condoms: Impact on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51-273.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K C I

##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Sang-Chul Han

DaeguHaany University Dept. of Adolescent Welfare & Counseling

This paper discuss adolescent's a quality of life related with risk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 to influence on risk behavior(runaway, smoking, sexual behavior) of the protective factors that moderat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delinquency). The assumption of this study that the protective factors counterbalance the negative influence of risk factors and finally, diminish a the problem behavior including a delinquent. A total of 1,020 students of a vocational high schools and a 216 adolescents of a special groups(the public institution that consisted with a delinquent young man) completed the questionnaires(risk behavior, 5 protective factors) of compiled by this researcher. The protective factors have selected based on the various prior studies analyzed with adolescent's risk behavior a family functioning, a father(a mother) each and child communication, a self efficacy, and a social support. Statistics applied for the data analysis are Chisquare analysis, two-way ANOVA, and Standard Discrimin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pecial group is higher than the general group in the rate of runaway, smoking, and sexual deviant behavior. Second, the protective factors are not action in the special group have experienced delinquency, but are only action in the general group consisted with the students of a vocational high schools. This means that the protective factors discrimin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risk behaviors, and blocking out the intervention of a problem behavior in the general adolescents. Although each protective factor influence to different according to each risk behavior, a role of a parent-child communication, a family functioning, and self-efficacy high orderly. Finally, discuss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negative influence of risk factors, offset the connection between a risk behavior and a problem behavior, and improve and a resilienc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risk behavior, protective factors, risk factors, resilience